



광주시청 김영건 '집중 또 집중' 김영건(광주시청)이 26일 열린 도쿄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식(MS4) 예선에서 스페인 프란시스코 로페즈 사야고에게 공을 넘기고 있다. 김영건이 3-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양궁 김민수 “나만이 경쟁 상대”

대표팀 막내...금메달 사냥 나서
“한발 한발 집중 후회없는 경기로
도쿄에서 애국가 꼭 울리고 싶어”



대한민국 장애인 양궁 대표팀의 '막내' 김민수(22·대구도시철도)가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민수는 27일 일본 도쿄의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도쿄 패럴림픽 양궁 남자 리커브 랭킹 라운드를 치른다.

경기를 앞두고 김민수는 “설렌다. 특별히 견제하는 국가나 선수는 없다. 나만이 경쟁 상대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1999년생인 그는 어느새 두 번째 패럴림픽에 출전한다.

2016년 리우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해 리커브 개인전에서 17위, 단체전에서 9위를 기록했다.

지난 경험을 토대로 도쿄에서는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김민수는 “후회 없이 한 발 한 발 집중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 도쿄에서 애국가가 울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10살이던 2009년 친구와 높은 담벼락에 올라갔다가 담이 무너져 두 다리를 잃은 그는 부모님의 권유



로 활을 잡았다.

“양궁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다. 말수도 늘고 자신감도 생겼다”는 게 그의 말이다.

이내 김민수는 장애인 양궁의 '기대주'가 됐다.

태극마크를 달고 리우 패럴림픽에 출전한 데 이어 2018년 체코 세계랭킹 토너먼트 리커브 남자단체전에서 우승했고, 2019년 네덜란드 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 리커브 오픈에서는 662점으로 세계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도쿄에서는 1960년대, 1980년대생인 '인생 선배'들 사이에서 양궁 대표팀 막내로 활을 든다.

김민수를 바라보는 유인식 감독은 “컨디션이 좋다. 도쿄 날씨가 너무 더워 고생하는데 젊고 건강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날씨 등 변수가 있지만, 김민수의 개인전 금메달을 바라 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수영 조기성 자유형 100m 5위...2연패 불발

'리우 3관왕' 조기성(26·부산장애인체육회)이 2020 도쿄 패럴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00m에서 5위를 기록했다.

조기성은 26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남자 자유형 100m(스포츠투등급 S4) 결승에서 1분28초46으로 터치패드를 찍어 전체 5위에 자리했다.

2번 레인에서 힘차게 출발한 조기성은 첫 50m를 3위(41초33)로 주파했으나 마지막 50m에서 5위로 밀려났다.

금메달은 일본의 스즈키 다카유키(1분21초58)가 획득했고, 루이지 베자토(이탈리아·1분23초21)와 로만 자다노프(러시아올림픽위원회·1분26초95)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조기성은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자유형 50m·100m·200m(S4)를 제패하며 한국 패럴림픽 수영 최초 3관왕에 올랐다.

이번 도쿄 대회에서는 한국 패럴림픽 수영 선수 최초로 100m 2연패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전날 치른 남자 평영 50m 결승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

조기성은 자유형 200m와 50m, 배영 50m(이상 S4)에서 메달 도전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흥국생명 젊은 패기 통했다

도드람컵 프로배구 도로공사 꺾고 컵대회 4강 진출

흥국생명이 한국도로공사를 꺾고 컵대회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흥국생명은 26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2021 의정부·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조별리그 순위결정전에서 도로공사에 세트스코어 3-1(25-23 18-25 25-22 25-21)로 승리했다.

조별리그 2승 1패를 기록한 흥국생명은 B조 2위를 확보해 각 조 2위까지 오르는 준결승 무대를 밟았다.

흥국생명은 1세트를 힘들게 가져왔다. 22-23에서 상대 팀 정대영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동점이 됐고, 이후 최윤이의 오픈 공격과 김미연의 서브 에이스로 세트스코어 1-0을 만들었다.

2세트를 18-25로 내준 흥국생명은 3세트에서 가져가며 기세를 잡았다.

24-19에서 연속 3득점을 내주며 흔들리는 듯

했지만, 상대 팀 김정아의 서브 범실로 3세트를 끝냈다.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된 흥국생명은 체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4세트에서 경기를 마쳤다.

흥국생명은 4세트 한때 15-8로 앞서며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상대 팀의 무서운 추격을 받으며 22-20까지 쫓겼다. 이후 김다은이 천금 같은 오픈 공격을 성공했지만, 이주아의 서브 범실로 다시 두 점 차가 됐다.

이때 박현주가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그는 강한 스파이크를 상대 코트에 쫓은 뒤 서브로 상대 범실을 유도하며 경기를 끝냈다.

김다은은 18득점을 기록해 팀 승리를 이끌었고, 김미연이 서브 득점 2점을 포함해 14점을 올렸다.

도로공사는 전세안이 21점을 기록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부진이 아쉬웠다. /연합뉴스

윌리엄스 자매 시대 저무나

메이저 대회 단식 30승 합작 20년 넘게 여자테니스 지배 올해 US오픈 자매 모두 불참

비너스 윌리엄스(147위·미국)가 올해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750만 달러·약 674억원)에 출전하지 않는다.

윌리엄스는 26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해 US오픈에 나가지 못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여름부터 다리 부상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비너스의 동생 세리나 윌리엄스(22위·미국) 역시 올해 US오픈에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불참한다고 밝힌 이후 약 10시간 만에 언니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30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올해 US오픈에는 비너스, 세리나 윌리엄스 자매가 모두 불참하게 됐다.

메이저 대회에 윌리엄스 자매가 나란히 빠지는 것은 2011년 프랑스오픈 이후 올해 US오픈이 10년 만이다.

윌리엄스 자매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세계 여자테니스를 지배해왔다.

1981년생인 동생 세리나가 1999년 US오픈 단식 정상에 먼저 올랐고, 1980년생 비너스는 2000



세리나 윌리엄스



비너스 윌리엄스

그러나 나란히 41세, 40세 노장이 된 이들의 시대도 어느덧 저물어가는 분위기다.

비너스는 2017년 Wimbledon 준우승, 세리나는 2019년 US오픈 준우승을 마지막으로 메이저 대회 결승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올해 세리나는 호주오픈 4강, 비너스는 호주오픈과 Wimbledon 2회전이 메이저 최고 성적이다.

동생 세리나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3차례 우승, 마저릿 코트(은퇴·호주)가 보유한 최다 우승 기록 24회에 살짝 다가섰으나 2017년 호주오픈 이후로는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다.

이로써 올해 US오픈에는 윌리엄스 자매와 남자 단식의 라파엘 나달(4위·스페인), 도미니크 티무(6위·오스트리아), 로저 페더러(9위·스위스) 등 '빅 네임'들이 대거 불참한다.

윌리엄스 자매와 페더러, 나달이 메이저 대회에 모두 불참하는 것은 1997년 호주오픈 이후 24년 만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인질
2관	인질
3관	싱크홀
4관	인질
5관	레미니센스
6관	싱크홀
9관	모가디슈
7관	씨네커플 귀문
8관	씨네커플 싱크홀, 여름날 우리, 울드 다이노 마이 프렌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양림

광주시립극단 기획공연
제1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낭독공연
양림
일시 : 2021. 08. 30(월) 16: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I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 2021. 09. 06.(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